

### 영·섬권수도사업단 '안전 최우선 실천' 결의대회



한국수자원공사 영·섬권수도사업단(단장 김성현)은 지난 30일 안전보건공단 여수안전체험교육장에서 공사관계자 합동 '안전 최우선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결의대회는 영산강과 섬진강 권역에서 추진 중인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 발주처와 건설사업관리단, 원·하도급사, 건설근로자 4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안전문화 확산과 의식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행사는 참석자 전원의 결의문 낭독과 안전용품 전달식에 이어 안전보건공단 여수 안전체험교육장에 마련된 안전 체험과 심폐소생술(CPR) 교육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자연·문화유산 보호 나서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지난 31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와 구례군, 국립산림과학원, 서울대 남부학술림, 국립순천대학교 박물관과 자연·문화유산의 보호 및 생태·문화적 가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문화유산의 훼손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리산 국립공원 내 천연기념물(올빛나무, 화엄매)의 증식·보전과 지리산국립공원 문화자원 조사·발굴 및 정보 교류, 기타 각 기관의 발전과 후호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항 등을 협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바이오스마트그룹 글로벌 인재양성 위한 도서 기증



바이오스마트그룹(박혜린 회장)이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8000여권(1억원 상당)의 도서를 기탁했다. 지난 31일 전남도청 귀빈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박혜린 회장, 전성열 유니시스팀 부사장, 범희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1971년 설립된 바이오스마트그룹은 스마트솔루션, 에너지, 바이오, 문화콘텐츠 분야 등 12개의 계열사를 운영하며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해 오고 있다. 2019년 전남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 6200만 원 상당의 도서와 화장품을 기부하는 등 나눔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유현석 기자 chadol@

###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미래기술학교 운영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지난 31일 호남대학교 IT SQUARE 홀에서 광산구지역 고등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2024 온마을이음학교 미래기술학교'를 운영했다. (사진)

'온마을이음학교 미래기술학교'는 지난해 4월 '온마을이음학교 광산구 이음센터'가 출범한 이후 시교육청·광산구·호남대학교가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AI 드론 ▲창의 설계코딩 ▲미래 모빌리티 등 6개 분야 이론 및 실습을 진행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김동진 광주대 총장, 전국대회 우승 여자농구부 격려



광주대학교 김동진 총장이 지난 30일 제40회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에서 6년 만에 우승컵을 탈환한 여자농구부를 격려했다. (사진)

김 총장은 국선경 감독을 비롯한 여자농구부 선수들을 초청해, 전국 강자들을 꺾고 우승을 차지해 학교 명예를 높인 선수들이 자랑스러 다며 금일봉을 전달했다. 국선경 감독은 "이번 대회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체력훈련과 외과수술을 강화해 9월부터 재개되는 KUSF 대학농구리그에서 대회 2연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영산강유역환경청

### 북구 '시민의 숲' 수질 점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지난 31일 광주시 북구 시민의 숲을 방문해 여름철 바닥부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안전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 TV프로그램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	KBS1	KBS2	MBC	KBC/SBS
00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5	50 인간극장	00 생생정보 스페셜 30 올림픽 하이라이트	00 광주 MBC 뉴스투데이 30 생방송 오늘 아침	10 KBC 모닝와이드 30 SBS 파리 2024 하이라이트
08	25 아침마당	00 2024 파리 올림픽 중계식	30 2024 파리올림픽 하이라이트 파리 타임	50 좋은아침
09	30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방학특선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다큐 인사이트(재)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4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재)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40 팔도밥상 스페셜(재)	00 KBS 드라마 스페셜 셀렉션 <일의 기쁨과 슬픔>	15 건강의 재구성 셀룩(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35 올림픽 하이라이트 봉주리 파리	2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00 12 MBC 뉴스 25 2024 파리올림픽 하이라이트	00 SBS 12뉴스 20 민방 네트워크 뉴스 40 SBS 파리 2024 하이라이트
1	00 방학특선 아주 사적인 여행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일일드라마 스캔들 스페셜	10 헬로킴즈 과학교실(재) 25 한글용사 아이(재) 55 2시 뉴스 외전	
2	00 KBS 뉴스 10 동행(재)		55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수영/유도/양궁>	00 뉴스브리핑
3	05 우리 집 금슬아지(재) 55 2024 파리 올림픽 <육상/비치발리볼>	00 여기는 파리 <배드민턴/골프/사격/유도/탁구>		00 SBS 파리 2024 <배드민턴/수영/유도/양궁/탁구/핸드볼 여자>
4				
5			00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수영/유도/양궁>	
6	00 2024 파리 올림픽 <핸드볼/테니스>			
7			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0 MBC 뉴스데스크 50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유도/양궁>	
8		00 여기는 파리 <배드민턴/탁구/양궁/유도>		00 SBS 8 뉴스 20 KBC 8 뉴스 40 SBS 파리 2024 <배드민턴/탁구/양궁/유도>
9	00 KBS 뉴스9 50 방송4법, 현안과 쟁점은?			
10			25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유도/양궁>	
11	10 2024 파리 올림픽 <골프/테니스>			00 SBS 파리 2024 <배드민턴/탁구/양궁/유도>
12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레인보우 버블잼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10 EBS 뉴스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3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건축탐구 - 집(재)	19:20 고향민국
07:00 허풍선이 미술쇼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PD로그
07:15 빅 블루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오지계 좋은 스리랑카 -기차타고 오지요>
07:30 하프와 친구들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21:35 한국기행 <노는 것을 허하노라 4부 부부의 숲속 해양일지>
07:45 꼬마버스 타요	15:15 클래스 e	21:55 글로벌 가족 일기 -안녕! 4남매
08:00 당동당 유치원	15:55 블록스	22:45 다큐멘터리K
08:20 최고다! 호기심 딱지	16:10 당동당 유치원(재)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8:50 고고다!는 해양구조대	16:30 페파 피그	24:00 EBS 비즈니스 리뷰
09:05 꿈끼와 처음 수학	16:40 마사와 곰	
09:20 인간이 되자!	16:50 도레미 프렌즈 쇼츠	
09:40 신계속의 맛따사이클 다이어리(재)	16:55 꼬마버스 타요(재)	
10:30 한국기행(재)	17:10 최고다! 호기심 딱지(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일 (음 6월 27일 丁酉)** ☎ 010-9790-8237

<p><b>子</b></p> <p>36년생 정예한 논란에 휩싸일 수다. 48년생 절실히 필요한 분야만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60년생 아무리 힘들더라도 정성으로써 도움을 다 한다면 복받을 것이다. 72년생 심사숙고해야만 한다. 84년생 변화하는 형세이니 기민하게 응대해야 한다. 96년생 여러 사람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난처해지리라. 행운의 숫자 : 45, 86</p> <p><b>丑</b></p> <p>37년생 망심하고 있다면 목전에서 물거품이 될 수도 있으니 여러 가지 변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예의 주시하라. 49년생 근본적인 원칙을 중시하고 그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61년생 힘들어 행하지 않아도 저절로 변하여 잘될 것이다. 73년생 정성을 들여야 하느니라. 85년생 실속이 있어야 한다. 97년생 반가운 소식이 있겠다. 행운의 숫자 : 24, 69</p> <p><b>寅</b></p> <p>38년생 자신이 해결할 역량에 충분하니 굳이 남에게 구할 필요가 없다. 50년생 옛것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찾아라. 62년생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니 각오해야겠다. 74년생 지금은 좋고 나쁨을 따질 계제가 아니니 우선, 확실하게 추진하고 볼 일이다. 86년생 뒤늦게야 깨달을 것이다. 98년생 체계적인 정돈이 필요하도다. 행운의 숫자 : 57, 82</p> <p><b>卯</b></p> <p>39년생 즉시 조치했을 때 부작용을 줄인다. 51년생 발 빠른 실태 분석과 조치가 절실하다. 63년생 변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백번 낫다. 75년생 농부가 경작하는 심정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다. 87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99년생 지나간 흔적을 잘 살펴보면 힌트를 얻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07, 96</p> <p><b>辰</b></p> <p>40년생 옛것으로부터 길함이 따를 수다. 52년생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도록 하라. 64년생 주변 상황까지 정확히 살피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76년생 설계에 빈틈이 없어야 진행이 원활해질 것이다. 88년생 전연 뜻밖의 상황이 전개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00년생 소모적인 경쟁은 상호 파멸을 자초할 뿐이니 자제하라. 행운의 숫자 : 25, 53</p> <p><b>巳</b></p> <p>41년생 구분 지어 놓지 않으면 혼란을 가중할 것이다. 53년생 인식했다면 발생하기 전에 피하는 것이 낫다. 65년생 망심하다가가는 역장이 무너질 수도 있느니라. 77년생 탐스러운 육질의 과실이 줄렁줄렁 매달려 있다. 89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해야만 하느니라. 01년생 합리적으로 수용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2, 73</p>	<p><b>午</b></p> <p>42년생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리라. 54년생 가장 절실한 부분부터 손을 대는 것이 바람직하다. 66년생 비울수록 새롭게 채워질 틈을 넓게 할 것이다. 78년생 조언을 구해본다면 분명히 답을 얻을 수 있다. 90년생 망심하지 말고 새어 나가는 점이 없는지 날마다 살펴봐야 한다. 02년생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른다. 행운의 숫자 : 16, 88</p> <p><b>未</b></p> <p>43년생 어떠한 재난에도 능히 당해 낼 수 있으리라. 55년생 결정할 일이 아니니 마음 편히 있어도 된다. 67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끈기 있게 매달려야 할 때다. 79년생 충분한 이완시켜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이익이다. 91년생 지금 즉시 바로 잡아 두어야 뒤탈이 없으리라. 03년생 가닥을 잘 추스르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44, 52</p> <p><b>申</b></p> <p>44년생 미진하더라도 인간적으로 해결하니 것이 좋다. 56년생 흥기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68년생 우회적인 방법보다 직접적인 실행이 더 현명하다. 80년생 막연하던 절제할 수도 있어야겠다. 92년생 뜻을 확실히 펼쳐도 좋을 때가 되었다. 04년생 일방으로 편중되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길목에 이른다. 행운의 숫자 : 23, 72</p> <p><b>酉</b></p> <p>45년생 혼란스러운 때 유익한 조언자가 나타나는 동세이다. 57년생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하므로 이르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라. 69년생 하찮게 여겨 왔던 바의 역량이 크다. 81년생 파사로운 햇살을 받아 길조가 썩뜨리라. 93년생 대세에 합류하는 것이 무리가 없고 가장 안전하다. 05년생 수용할 수밖에 없는 대세이다. 행운의 숫자 : 48, 94</p> <p><b>戌</b></p> <p>46년생 기본적인 관리에 충실하다면 문제 없었다. 58년생 쓸모 없다고 여겨 왔던 것이 오히려 이롭다. 70년생 한 곳에 만 제대로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82년생 만족할 줄 아는 것도 커다란 지혜임을 알아야 한다. 94년생 애초에 마음 먹었던 대로 행한다면 하자기 없을 것이다. 06년생 과산은 소모적인 행위를 조심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30, 63</p> <p><b>亥</b></p> <p>35년생 일단 수용하고 보는 것이 이익이리라. 47년생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시기이다. 59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획기적인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71년생 자신스럽고 실감이 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다. 83년생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95년생 이채로운 세계를 접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1, 85</p>
---	---